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3차 회의 회의록

2007. 7. 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

1. 일시 : 2007년 7월 23일 (월요일) 17:00 - 19:00

2.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 3. 참가자 (가나다 순)

강대근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김세원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서기관  
박상식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前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  
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정두용 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정봉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조준혁 외교통상부 문화홍보심의관  
주철기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前 주프랑스 대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직원 다수

### 4. 진행순서

17:00 - 17:05 인사말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7:05 - 17:10 참가자 소개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7:10 - 17:40 주제발표 : **‘외교통상부 조직 개편에 따른 대 유네스코 외교의 새로운 전개’**  
(발표 : 조준혁 외교통상부 문화홍보심의관)  
17:40 - 18:55 주제 토론 (사회 :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실장)  
18:55 - 19:00 맺음말  
19:20 - 21:00 만찬 (로얄호텔 2층 일식당 ‘기꾸’)

### 5. 주요 내용

#### 가. 인사말 (이삼열 사무총장)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네스코를 통한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런 시기에 유네스코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포럼을 기획하게 됨. 참가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

#### 나. 주제발표 (조준혁 심의관)

##### **‘외교통상부 조직 개편에 따른 대 유네스코 외교의 새로운 전개’**

과거 외교통상부 내에서 유네스코 업무는 국제기구국에서 담당해왔으나 지난 1999년부터 문화업무만 별도로 문화외교국에서 담당해옴. 이처럼 유네스코 업무 담당의 이원화로 인해 대 유네스코 외교에 있어 종합적인 정책 혹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왔음.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내에서 유네스코업무 담당 부서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이달 중순 (2007년 7월) 외교통상부 직제개편을 통해 문화외교국이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체제가 일원화 됨. 아울러 문화외교정책과가 신설되어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임.

그동안 외교통상부 내에서 유네스코 업무를 소홀히 해왔으며, 유네스코 주요 회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왔음. 이는 정부부처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량, 상대적으로 낮은 유네스코 업무의 중요도, 유네스코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경험 및 이해 부족 등 유네스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종합적 시스템의 결여에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됨. 이런 현실 인식과 조직 개편을 계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첫째, 유네스코 관련 정부부처, 기관, 단체 (지자체 및 기업 포함)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대 유네스코 업무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즉, 유네스코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대 유네스코 외교 및 협력 사업에 있어 창구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아울러, 대 유네스코 업무 관련 정보를 관련 부처,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함.

둘째, 대 유네스코 외교의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함. 소위 공여국 모임인 제네바그룹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위치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오지 못함. 유네스코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자 함.

셋째, 대 유네스코 통합 외교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연대가 중요한 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적으로 유네스코 외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이런 과정에서 주 유네스코의 독립대표부 설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네스코 독립대표부가 수행해야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함. 현재 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설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유네스코의 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독립대표부 없이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설치가 필요함.

또한 우리나라의 활동에 대한 유네스코 본부의 평가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자 함. 과거처럼, 국가적 이해와 맞물리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유네스코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갖고자 함. 이처럼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유네스코 총회, 집행이사회, 정부 간회의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주기를 희망함.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점차 커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부처,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위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네스코에 진출해있는 한국인의 수도 점차 늘이고, 한국인의 고위직 진출도 독려하고자 함.

결론적으로, 외교통상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유네스코 업무를 일원화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임. 외교통상부 자체만의 능력배양 뿐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와의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자 함.

#### 다. 주제토론

- 정봉근 위원 : 이번 포럼의 타이틀과 관련 '한국의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확인코자 함. 한편, 이러한 논의가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 유네스코 조직의 시급한 요구 및 흐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정우탁 실장 : 동 포럼은 대 유네스코 외교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변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유네스코 조직의 최근 동향 및 중장기전략 등은 지난 2차 포럼에서 논의된 바 있음.
- 정두용 회장 : 우리의 경우, 과거부터 유네스코 전략, 참여 등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만 관심을 가져왔음. 유네스코 외교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그 가시적 성과와 실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옴.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네스코 외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 한편, 정부 조직 및 담당인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 유네스코 외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동시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사업 확장보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대 유네스코 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조준혁 심의관 : 정두용 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각종 유네스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임. 외교통상부가 유네스코 업무에 관심을 가질수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증대가 기대됨. 유네스코업무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아왔던 것은 사실이나 점차 국가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 유네스코 전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관련 정부부처, 기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고자 함.
- 주철기 대사 : 적극적인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네스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조준혁 심의관의 발제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렇게 실현되길 희망함. 특히, 유네스코 독립대표부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유네스코 업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됨. 한편, 한국이 제공하는 유네스코 기금들을 종합하고, 한국과 유네스코 간 기금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활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유네스코 사업 분야들 중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집행이사국 진출 이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조준혁 심의관 :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우리 정부가 이를 비준하기로 최종 결정함. 현재에는 비준 절차를 추진 중임. 그 절차 과정에서 동 협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지 여부는 외교통상부 조약국과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 중이나, 이에 관계 없이 연내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2년 후 동 협약관련 정부간 위원회 진출을 추진 중임.
- 이삼열 총장 : 대 유네스코 외교에 있어, 누가 조정을 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지가 매우 중요함. 대부분 회원국의 경우, 외교부가 대 유네스코 외교에 있어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교육부총리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관련 4개 정부부처 차관들이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명목상으로는 모든 관련 정부부처가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없기에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향후 외교통상부가 대 유네스코 업무를 통합, 조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들 정부부처,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임. 한편, 유네스코 관련 주요 외교협력 사안들을 검토,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의체가 마련되길 희망함.
- 박상식 교수 : 현실적으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부처 간 업무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무척 어려움. 특히, 국가안보와 같은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총괄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실을 잘 감안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설치 여부 보다는 유네스코 독립대표부가 수행해나가야 할 역할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함. 한편,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던 언어 문제가 최근 들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여러 주변 여건들도 대폭 개선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력발휘를 기대함.

- 정봉근 위원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과 같은 상위급 레벨에서의 조정, 협의 틀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관련 문제들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한편, 유네스코의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중요 주제들을 선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즉, Core subject를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강대근 원장 : 유네스코가 평화와 안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한다면, 회원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추구해야할 지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필요함. 아울러 유네스코 활동 참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조직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리더쉽 및 비전제시가 필요함. 아울러 다양한 국제규범들 혹은 세계유산 지정 이후의 Follow-up 등이 국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들이 동반 될 때, 우리의 대외적 발언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됨. 끝으로 유네스코 Category II 기관의 설립뿐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복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유석진 교수 : 조준혁 심의관의 발표내용 및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발표내용에 있어 우선순위 및 시간의 개념이 누락되어 있지 않나 생각됨. 예를 들어 정보 공유를 위한 센터화, 외교업무의 선진화, 통합외교 정책 등을 계획하고 계신데 과연 이들 중 어느 것이 실현 가능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단기간에 가능하고 어느 것이 장기적 노력을 요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있음. 이에 비해 low politics에 해당하는 유네스코 업무 영역에서 조정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이의 조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일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보다는 능력과 의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에 먼저 초점을 맞춰 역량을 집중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조직개편 등과 맞물리기에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한편, 의지의 유무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Leadership 보다는 Governance 구조를 통해 해결해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두 번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 유네스코 외교력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금 혹은 예산의 부족인지, 국내 제도의 문제인지, 인적자원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비전의 문제인지, 전략의 문제인지 등을 고민하되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만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 이승환 본부장 : 이제 유네스코 외교의 질을 높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됨. 조준혁 심의관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런 좋은 의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짜여야 할 것이고 이의 시간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도 준비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동안의 우리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제도의 구축과 맞물려져야 함.

#### 라. 질의 및 답변

- 박유선 (유학준비생) :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처 간 협의 조정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는데, 혹시 부처들 간에 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됨. 한편, 이와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구체적인 비전제시를 통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끝으로 외교통상부의 조직개편을 계기로 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속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됨.
- 조준혁 심의관 : 정부 부처별 철학, 판단, 업무관의 차이로 인해 부처 간 업무 조정이 그리 쉽지 않음.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 유네스코 외교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부처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앞장서고자 함. 이는 유네스코 외교를 조정하는 대외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이지 외교통상부가 관련 업무를 소유하겠다는 뜻은 아



님. 따라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되 외교통상부는 이를 전체적 관점에서 조정 혹은 조율 하고자 함. 아울러 이의 연장선상에서 유네스코 업무의 중요성을 국내차원에서 홍보도 강화하고자 함.

- 정두용 회장 :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조직 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에 몰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잘 육성하여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 방법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인력양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함. 유네스코 중기전략,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서 등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이러한 영향력 행사의 가시적 성과물이라 평가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진출과 관련, 집행이사국 진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미리 고민해야함. 아울러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유네스코 독립대표부의 설치도 반드시 필요함.
- 주철기 대사 : 조직 및 시스템을 보완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임. 따라서 유네스코 전문가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전문가 육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사업 및 조직 운영에 있어 핵심이 되는 문서인 유네스코 중기전략,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서 등의 작성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박상식 교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상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Associate School Project, UNITWIN 등과 같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사업과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문학작품을 해외에 알리는 번역사업 진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삼열 총장 :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됨. 대 유네스코 외교의 선진화, 체계화, 종합화가 계획대로 잘 이뤄지길 희망함.